

# 신나는 음악영화가 몰려 온다



## ‘드림업’ ‘페임’ ‘나인’ ‘퀸 락 몬트리올’

### 노래·춤·연기 어우러져 콘서트장 느낌

신나는 음악영화가 찾아온다. 오는 9월 3일 개봉하는 ‘드림업’은 음악으로의 기투명한 아이돌 록 밴드를 결성하고 꿈과 우정,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특히 ‘드림업’에는 리드기타 ‘오마르’역의 팀 조(조웅제)와 키보드 연주자 ‘킵’역의 리사 정(정다은) 등 두명의 한국인 배우가 출연, 눈길을 끈다.

영화는 색시하고 매력적인 밴드의 리더 살롯, 카리스마 넘치는 4차원 보컬 샘, 그리고 합창 미달 엄친아에서 천재 매니저로 거듭

나는 윌 등 주인공들이 ‘밴드슬램’의 우승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미 1980년 알란 파커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 선 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영화 ‘페임’은 30여 년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다. ‘페임’의 음악은 당시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많은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노래, 춤, 연기, 연출 등 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뉴욕 예술 학교, 전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아티스트들이 지원하지만 엄격한 오디션을 통과한 소수의 인재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곳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온다.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 ‘마르크’, 청순한 외모의 배우 ‘제니’,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인 ‘데니스’, DJ, 랩퍼 등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말릭’, 열정적인 연출가 ‘네일’까지.

영화는 상위 1%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성취와 좌절, 사랑과 우정을 흥겨운 춤과 노래로 보여준다.

실제로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에서 활약 중인에서 북, 케링턴 페인, 폴 맥길 등 가수와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며 환상적인 댄스 실력을 자랑하는 엘리스역의 케링턴 페인은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 ‘유 캔 댄스’에서 1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톱 10’안에 들어 돌풍을 일으켰던 신예다.

연말에 개봉 예정인 뮤지컬 영화 ‘나인’은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8과 1/2’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황정민이 귀도 감독으로 출연해 뮤지컬 무대를 올리기도 했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 니콜 키드만, 주디 덴치 등 호화 캐스팅으로 관심을 얻고 있으며 르네 켈위거와 캐터린 제타 존스가 주연을 맡았던 ‘시카고’의 톰 마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점도 눈길을 끈다. 세계적인 그룹 ‘퀸’의 1981년 몬트리올 공연 상황을 담은 ‘퀸 락 몬트리올’은 콘서트장에 온 듯

한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영화다.

프레디 머큐리의 파워풀한 보컬과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 연주, 로저 테일러의 보컬과 드럼 연주가 어우러진 ‘퀸 락 몬트리올’에는 ‘Love of my life’, ‘Bohemian rhapsody’, ‘We are the champions’ 등 퀸의 주옥같은 히트곡들이 흐른다. 현재 씨너스 전대에서 상영중이다.

그밖에 신인 강대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하모니’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여자 최수들이 합창단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다.

윌드스타 김윤진과 나문희가 아기를 임양보내야 하는 정혜역과 가족마저 등을 돌린 사형수 문옥역을, ‘내조의 여왕’의 정수영과 박준면 등 뮤지컬 배우 출신들이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준다. 성악과 출신으로 ‘해운대’에서 이민기의 상대역이었던 강예원도 모습을 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 영화 블럭

‘인도판 헬렌 켈러’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인도영화로 지난 2006년 제작돼 많은 인기를 모았다.

소녀 미셀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8살 소녀다. 어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녀의 몸부림은 부모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 어느날 미셀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노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하이 선생이 나타나고, 그는 새로운 세상으로 그녀를 이끈다.



## 짐승같은 미셀의 삶에 눈·귀·입 되여준 선생님 ‘인도판 헬렌 켈러’ 화제

세월이 흘러 속너로 거듭난 미셀은 대학 진학의 꿈을 꾸고, 사하이는 미셀의 곁에 머물며 그녀의 눈과 귀와 입이 된다. 그러던 중 사하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고, 미셀은 이제 자신이 선생님에게 기적을 보여주려한다.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슬람독 밀리너네어’에도 출연했던 인도의 국민배우 아미타브 바찬을 비롯,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모든 선생들이 포기할 정도로 짐승같았던 어린 미셀을 연기한 라니 무르쿠지는 생애 첫 스크린 도전인 ‘블랙’으로 인도 최대 영화제인 ‘페어 원 필름페어’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건강합니다 3. 가까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 순천점 (061) 752-9940 / 목포점 (061) 262-9200 / 송광점 (062) 227-9970 / 익산점 (063) 851-2422

**남성성기능강화제**

성기능 강화제... (text about male health supplement)

010-2211-0593

**다사랑(유통)**

성인용품 창업정보

15년 전문 노하우를 전수해드립니다

광주전화/062-263-7335  
서울전화/02-2217-7335  
핸드폰/010-4499-4594

**큰 놀이**

회춘의 '꿈' 파워마카

010-8508-4114 / 02-2173-0454 / 010-4992-4114 / 02-2173-4114

**대보빌딩 임대**

★ 광주 최고 상권의 中心 ★  
[동부경찰서-전남여고 우문 사이]

062) 234-1112